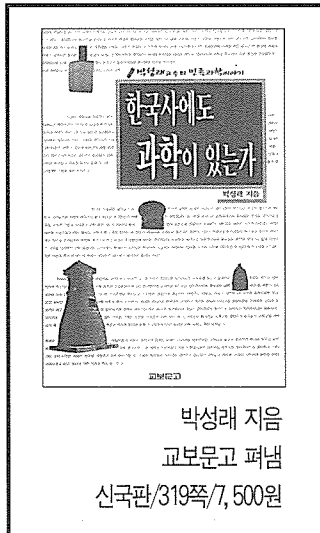


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묘한 양면성을 띄게 되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출현 등 부정적인 면이 점점 더 위세를 더해가고 있다. 때로는 인간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려는 인류의 노력을 늦출 수만도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오늘날 국가간의 경쟁에서 경제력의 우위를 결정하는 강력한 수단이 과학기술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저자는 「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라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사에 과학은 얼마든지 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한국 과학사의 지평을 열고 한국과학사를 집대성한 몇 명 안 되는 한국과학사 전공 중진학자인 저자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점점 가중되어가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수준을 드높이기 위해서도 우리는 과학기술 전개과정과 그 속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알아두지 않으면 안된다.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에도 과학기술로 이루어낸 뛰어난 업적들이 있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랑스런 유산들도 있다. 이런 과거의 빛나는 업적을 되새겨 보고, 그런 전통을 밑거름으로 우리 민족의 과학기술 발달을 다짐해야 할 때다. 이런 이해가 국민적 교양으로 자리잡을 때, 비로소 우리 과학기술 수준은 한 단계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더 잘 맞는, 그리고 우리 전통에 더 잘 어울리는, 그런 과학기술 체제 일체, 저자는 이것을 '민족과학'이라 부르고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의 과학사를 민족과학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펼쳐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즉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족과학사란 이름으로 우리 과학사를 서술하고자 하는 저자는 다음과 같이 그 뜻을 밝히고 있다. 과학사를 무시한 채 우리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19세기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르는 일이다. 그 때까지 과학기술이란 역사 서술에 있어 그리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세기 이후의 역사는 국제화되고 세계화된

상황 속의 역사, 그리고 그 배경을 이루는 힘은 바로 과학기술이었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무시한 한국 역사의 서술이란 이전 거의 불가능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한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거기서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한국 과학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 과학사의 이해 없는 한국의 근대사 또한 설명될 수 없다.

이 책은 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를 위시하여 쇠와 돌을 다루던 사람들, 그 과학의 깊이 및 고대 일본의 과학기술은 삼국에서 건너간 것인가? 다라니경은 누구의 것인가? 세종의 천문학은 어디쯤 서 있었나, 실학자들은 서양과학의 옹호자였나, 19세기 - 우리는 일본에 얼마나 뒤졌던가, 조선에는 어떤 과학이 있었나, 과학에는 진정 국경이 없는가 등 24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사 속의 한국과학, 첨성대에 대한 여러 해석들, 금속활자의 발명, 세종의 카메라 그리고 천문기구들 등 96개 문항의 소재목을 중심으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민족과학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청소년은 물론 모든 대학생과 일반인들에게 민족의 자긍심, 민족의 얼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67

朴澤奎(건국대 이과대 화학과 교수)